

## 부산 대표 음악가 김학성이 편 『노래 모음』 (1950년)의 구성 및 특징

장 유 정\*

### | 목 차 |

- I. 머리말
- II. 김학성의 생애와 부산 기반 음악 활동
- III. 『노래 모음』 수록 노래의 양상과 특징
  - 1. 계몽을 주제로 한 노래
  - 2. 자연과 관련된 노래
  - 3. 인간사를 그린 노래
- IV. 맺음말

### | 국문초록 |

본고는 부산의 대표 음악가 김학성이 엮은 『노래 모음』을 살펴본 것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김학성의 생애를 통해 김학성이 초등용 노래책인 『노래 모음』을 발행하게 된 배경을 추정하였다. 김학성은 이 책을 발행한 1950년을 전후로 부산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 100곡이 실린 노래책 『노래 모음』을 편찬한 것은 중·고등학교의 교사 신분으로 있던 그가 어린이들의 음악 교육에도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노래책의 서문에 밝힌 것처럼,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노래를 보급하려는 마음에서 노래 100곡이 실린 『노래 모음』을 발행하였다.

\*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교수 / [jaayou@dankook.ac.kr](mailto:jaayou@dankook.ac.kr)

김학성은 한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노래책에 ‘한글’ 관련 노래를 많이 실은 것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엮음’ 대신에 ‘째’이라는 순우리말을 사용한다든지, 악보와 함께 적은 ‘나타냄표’가 거의 모두 한국어로 이루어진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는 교육자이자 음악가였던 김학성이 지향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즉 노래책의 구성과 수록된 노래들을 통해 그가 한글 사용을 실천하려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노래 모음』에 수록된 노래들을 계몽을 주제로 한 노래, 자연과 관련된 노래, 인간사를 그린 노래로 나누어 각각 살펴보았다. 동요는 음악과 문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단정할 수 없으나, 위의 구분은 분류하기에 상대적으로 수월한 노랫말을 중심으로 분류한 결과이다. <시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작품들을 본 연구자의 세 가지 구분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계몽을 주제로 한 노래는 주로 나라 사랑이나 한글의 우수성 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계몽을 주제로 했기 때문에 청유형 어머니 명령형 어머니를 사용한 노랫말이 많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계몽을 주제로 한 노래들을 조사하면서 연구자는 각 작품의 작사자와 작곡자의 정보를 재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자연 관련 노래들은 대체로 동화적인 상상력을 드러낸 노래와 애상적인 감정을 표현한 노래로 나뉜다. 자연 관련 노래들의 대부분이 의인화를 사용하여 자연을 사람처럼 묘사한 것이 특징적이다. 동요에서 동화적인 상상력을 표현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에 감정을 이입하여 애상적인 감정을 드러낸 노래를 듣고 부르며, 어린이들은 연민의 감정을 학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사를 그린 노래들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그린 노래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내 자신이나 친구를 그린 노래로 대별된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그린 노래가 음악적으로나 문학적으로 애상적인 것과 달리, 내 자신이나 친구를 그린 노래들은 음악적으로 경쾌하고 문학적으로 비유가 아닌 직설적인 표현을 쓴 것이 특징적이다.

본고는 김학성이 엮은 『노래 모음』 수록 곡의 면면을 살펴본 것으로 의미가 있다. 자료를 찾고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본고에서 언급한 각 노래에 대한 정보를 찾아 제시한 것은 본고의 성과다. 앞으로 1950년대에 발간된 여타 노래책과의 비교를 통해 이 시기 노래책의 전반적인 특징과 의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가 그 작업을 위한 작은 실마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핵심어 : 김학성, 부산 음악가, 노래 모음, 윤이상, 홍은순, 1950년대, 노래책

## I. 머리말

본고의 목적은 부산의 대표 음악가인 김학성이 엮은 『노래 모음』을 소개하는 것이다. “초등용 100곡집”이란 부제가 붙어 있는 『노래 모음』은 이제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노래책이다.<sup>1)</sup> 마산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소장하고 있던 이 노래책은 2021년 1월 24일에 방송된 KBS 「TV쇼 진품명품」에서 “광복 이후 발행된 어린이 음악책 5권” 중 한 권으로 소개되었다.<sup>2)</sup> 이날 방송에서 소개된 노래책들은 대체로 해방공간에 나온 노래책으로, 광복 이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음악책의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은 노래책들이었다.<sup>3)</sup>

가로 18.9cm×세로 25.8cm 크기의 『노래 모음』은 총 100곡을 싣고 있어 그 규모 면에서 여타 노래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다. 게다가 보통 서울을 기반으로 한 것과 달리, 이 노래책은 1950년에 향토문화협회 부산지부에서 별도로 발행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당시 김학성이 부산

- 
- 1) 논문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이 노래책을 언급한 학위논문이 나온 것을 알았다. 남영희, 『해방기 부산 음악사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에서 『노래모음』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이 논문은 『노래 모음』에 수록된 100곡의 제목과 작사자, 작곡자 이름 정도만 언급했을 뿐 본격적인 분석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본고와 구별된다. 아울러 그 논문에서 <어서 나가세>·<졸업식 노래>·<자장가>가 누락된 것과 달리, 본고에서는 누락된 노래 없이 100곡을 모두 확인하였음을 밝혀둔다. 남영희의 박사학위논문이 부산 음악사를 거시적으로 다룬 총론에 해당한다면, 본고는 미시적 연구의 결과물인 각론이다. 즉 거시적 연구의 기존 결과를 전제하되, 본고가 기본적으로 각론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 2) 이 자리를 빌려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자료 사용을 허락해주신 소장자 이진영 선생님과 「TV쇼 진품명품」의 전문위원이신 김영준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3) 「TV쇼 진품명품」에서 소개된 노래책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노래』(합천제1공립국민학교 음악연구부 편, 1946년 추정), 2. 『어린이 노래책』(나운영 편, 1947년), 3. 『노래모음』(김학성 편, 1950년), 4. 『초등 음악책』1·2·3학년용(국민음악연구회 발행, 1949년), 5. 『초등 음악책』4·5·6학년용(국민음악연구회 발행, 1949년). 이 중 『우리노래』의 연구는 장유정, 『해방공간의 음악책 연구: 초등 음악책 『우리노래』의 발굴 및 소개』, 『구비문학연구』 60, 2021을 참고할 수 있다.

에 거주하며 부산에서 음악활동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판권에 발행처 ‘향토문화협회’ 아래에 ‘향토문화협회 부산지부’라 적혀있기 때문이다.

당시 이 노래책이 일선 학교에서 어느 정도 보급되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1951년 당시 이 책을 소장하고 있던 이광년이란 분이 불펜으로 ‘마산월포국민학교’라 적고, 그 아래 ‘may 26 1951’이라 적었다. 이 책이 1951년 당시에 마산월포국민학교에서 음악책으로 사용했는지는 단정할 수 없고, 다만 마산월포국민학교<sup>4)</sup>와 관련이 있는 이광년이란 분이 1951년 5월 26일 당시에 이 책을 소장했으리라 추정할 뿐이다.

김학성의 생애와 음악 활동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한 『초창기 부산음악사』<sup>5)</sup>에 『노래 모음』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노래 모음』을 본격적으로 살펴, 김학성의 활동 하나를 보태는 것과 동시에 1950년에 간행된 『노래 모음』의 전모를 제시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초창기 부산 음악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였던 김학성의 생애와 음악 활동을 간략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특히 생애와 활약을 통해 그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음악책을 펴게 된 배경 등을 짐작해보기로 한다. 김학성과 관련된 자료를 찾을 수 있을 만큼 모두 찾았으나 그 속에서 『노래 모음』과 관련된 정보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생애 속에서 『노래 모음』을 간행하게 된 배경 등을 추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이어서 3장에서는 『노래 모음』에 수록된 총 100곡의 노래를 계몽을

4)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북15길 35에 위치하고 있는 월포초등학교는 1947년 9월 15일에 ‘월포국민학교’로 개교하였다. 이후, 1996년 3월 1일에 월포초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http://wolpo-p.gne.go.kr/wolpo-p/hm/hist/selectHistList.do?mi=49511> (2021년 4월 29일 검색)

5) 제갈삼, 『초창기 부산음악사』, 세종출판사, 2004.

주제로 한 노래, 자연관 관련된 노래, 인간사를 그린 노래로 나누어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동요는 문학과 음악이 어우러져 존재한다. 하지만 그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완벽한 분류를 하기란 애초에 불가능하다. 따라서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노랫말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나누었다. 이 또한 완벽한 분류는 아니나, 『노래 모음』에 수록된 100곡의 노랫말이 세 가지 분류에 대체로 포함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 자체가 당시 음악 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도 하고, 분류를 통해 비슷한 시기에 발간된 음악책인 『우리 노래』<sup>6)</sup>와의 비교도 가능하다. 이러한 각론이 모여 1950년대 발간된 노래책의 전모와 의미 등이 드러나리라 기대한다.

## II. 김학성의 생애와 부산 기반 음악 활동<sup>7)</sup>

전 부산대학교 음대 교수였던 제갈삼은 부산 음악가들의 생애와 활동 양상을 살피면서 김학성의 생애도 정리하였다. 특히 김학성의 아들이자 부산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였던 김준오의 쪽지를 토대로 하되, 여타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김학성 관련 오류들을 바로잡으면서 그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sup>8)</sup>

1911년 경북 김천 출생

6) 장유정, 앞의 글, 2021.

7) 김학성의 기본적인 생애 및 활동은 기본적으로 제갈삼, 앞의 책, 387-399쪽을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논문을 준비하면서 김학성과 관련된 자료를 찾을 수 있을 만큼 모두 찾았다. 하지만 제갈삼이 정리한 것 이상의 생애 관련 자료를 더 보태기는 어려웠다. 이에 생애 정리는 제갈삼이 제시한 것을 기본으로 하여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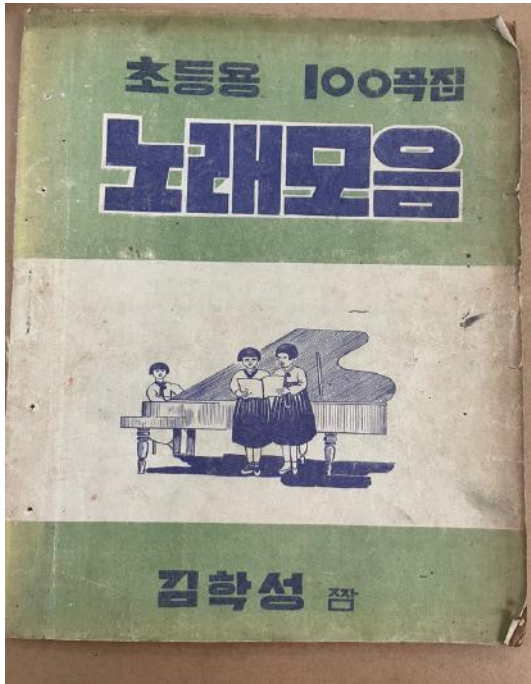
8) 위의 책, 389~390쪽.

- 1932년(?) 경북고등보통학교 졸업
- 1936년 노소전(盧少掄)과 결혼
- 1937년 일본 동경으로 건너감
- 1938년 일본 동양음악학교 본과 입학, 송죽 및 동보 관현악단 활동
- 1941년 일본 동양음악학교 본과 졸업, 중국 북경교향악단 입단
- 1942(43)년 제1회 귀국 독주회
- 1943년 부산 방송 관현악단 입단
- 1943년 바이올린 연구소(바이올린의 집) 개설, 부산 현악합주단 창설
- 1946년 부산사범학교 교사, 해방 기념 공연 출연(8월 15-16일)
- 1947년 부산관현악단 창단 연주, 제2회 부산음악가 대연주회 출연
- 1948년 부산음악학원(교)장, 제2회 부산관현악단연주회
- 1949년 <시와 음악의 회> 출연, 제2회 독주회
- 1951년 경남공고 교사
- 1953년 제3회 독주회, 오산중학교 강사
- 1955년 제4회 독주회, 부산여대 강사, 부산상고 교사
- 1956년 경남고등학교 교사, 동아대학 강사, 경남음악교육연구회 부회장
- 1957년 김학성·김천애 2인 음악회
- 1958년 별세(2월 25일)
- 1959년 제2회 부산문화상 수상(1월 9일)

위의 연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김학성은 1911년에 경북 김천에서 태어나 경북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37년에 일본으로 건너갔다. 1941년에 일본 동양음악학교를 졸업한 김학성은 귀국한 후, 1943년에 부산 방송 관현악단에 들어갔다. 1943년부터 부산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그는 바이올린 연구소를 개설하고 부산 현악합주단을 창설하고 개인 독주회를 여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 1948년에 개원한 부산음악학교는 부산 최초의 근대식 음악전문학교였다.<sup>9)</sup> 『노래 모음』이 발행된

9) 『부산일보』 1948. 3. 5. 당시 부산음악학교는 성악·바이올린·피아노 3개 학과에서 각

1950년 당시에 김학성은 부산음악학교 교장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51년에는 경남공고에서, 1953 오산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말하자면, 비록 초등(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을지라도 1950년 당시 김학성이 학생들의 음악 교육을 담당했던 것만은 알 수 있다. 김학성이 『노래 모음』을 엮게 된 배경은 노래책 첫 장에 김학성이 쓴 ‘국민학교 아동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김학성이 편 『노래 모음』표지(이진영 소장본)

좋은 노래가 없는 나라는 문명이 뒤떨어진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

---

각 30명을 모집했다.

다. 새 나라를 건설해야 될 여러분은 씩씩하고 힘차게 이 나라를 빛낼 노래를 많이 불러야 합니다.

이제 이 책을 짠 사람으로 느끼는 몇 가지고 있어 말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출판된 책은 너무 단순하고 많은 책을 보면 대개 이십 곡조 내지 삼십 곡조로 짠 것이 보통인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노래는 도저히 한 책 안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학과를 공부하는 동안에 재미스러운 노래를 사전처럼 볼 수 있는 “노래 모음”을 내놓기 위하여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동서양을 동(통)하여 유명한 여러 음악가 선생님들이 지은 동요 100곡집을 국민학교 아동 여러분을 위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이 노래모음이라도 국민학교 아동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노래 공부에 도움이 된다면 이 이상 더 다행은 없습니다.(띄어쓰기와 밑줄은 인용자)

4283년 4월 12일 찬사람 올림

김학성이 『노래 모음』을 엮은 것은 기존에 나와 있는 노래책이 많아 야 30곡조를 실었는데, 그마저도 아동들이 부르고 싶은 노래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되도록 많은 노래를 한 책에 실어 아동들이 다양한 노래를 접할 수 있게 해주었다. 실제로 군정청 문교부에서 1946년에 발행한 『초등노래책』(제1,2학년용)은 16곡을 실고 있다. 함천제1공립국민학교 음악연구부에서 1946년경에 편 『우리 노래』도 55곡을 수록하고 있다. 그에 반해, 『노래 모음』은 100곡의 노래를 실고 있으니, 다양한 노래를 제공하려 했던 김학성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위의 글을 통해, 김학성이 동서양을 아울러서 유명한 여러 음악가들이 지은 동요로 100곡을 선정한 것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일종의 사전처럼 100곡의 노래를 모은 『노래 모음』은 어떤 노래들을 수록하고 있을까? 다음 장에서는 100곡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 Ⅲ. 『노래 모음』 수록 노래의 양상과 특징

완벽한 분류는 아닐지라도 『노래 모음』에 수록된 노래 100곡은 편의상 그 노랫말을 중심으로 약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노랫말을 중심으로 한 것은 음악적인 요소와 비교해서 노랫말이 표면적으로나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쉽기 때문이다. 계몽을 주제로 한 노래, 자연과 관련된 노래, 인간사를 그린 노래가 그것이다. 계몽을 주제로 한 노래가 비교적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과 달리, 자연과 관련된 노래와 인간사를 그린 노래는 한 노래에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자연이 등장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사를 강조하기 위한 비교 대상으로 등장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인간사를 그린 노래로 볼 수 있다.

총 100곡 중 그 어떤 분류에도 넣기 어려운 노래는 <시계>였다.

시계 시계 영감님 대장간을 짓고서 / 똑딱 똑딱 칭칭칭 쉬지 않고  
일하네

시계 시계 영감님 하루 종일 원종일 / 똑딱 똑딱 칭칭칭 장단 맞아  
일하네 <시계>

4/2박자 8마디 다장조(C Major)로 이루어져 있는 <시계>는 시계가 돌아가는 것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노래다. 시계를 영감으로 표현했다는 것에서 역지로 인간사를 그린 노래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인간사를 그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세 가지 분류 중 어디에도 넣을 수 없었다. <시계>를 제외한 나머지 99곡은 그런대로 위의 세 가지 분류로 정리할 수 있었다. 그 각각의 모습을 보기로 한다.

## 1. 계몽을 주제로 한 노래

먼저, 계몽을 주제로한 노래로 17곡을 찾을 수 있었다. 노래들의 제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애국가>·<새 나라의 어린이>·<문자보첩(급)가>·<독립행진곡>·  
<우리말 우리글로>·<도레미파>·<한글 노래>·<앞으로 나가자>·<어  
린이 행진곡>·<어린이날<sup>10)</sup>>·<어서 나가세>·<소년소녀행진곡>·<건  
국의 노래>·<응원가>·<삼일운동의 노래>·<개선행진곡>·<무궁화>

노래책의 첫 곡은 안익태 작곡의 <애국가>이다. 4절 없이 <애국가> 노랫말을 3절까지 제시한 것이 특징적이다. 그 외 애국을 주제로 한 노래 중에서 주목할 것은 <삼일운동의 노래>다. 박종화가 작사하고 김순애가 작곡한 <삼일운동의 노래>는 광복 이후 가장 처음 공식적으로 불린 삼일운동 기념 노래이기 때문이다.<sup>11)</sup> 1950년에 정인보 작사, 박태준 작곡의 <삼일절 노래>가 삼일절을 기념하는 공식적인 노래로 제정되기 전까지 <삼일운동의 노래>가 삼일운동을 기념하는 노래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광복 이후 겨우 5년이 지났을 때인지라, 행진곡 풍의 <독립행진곡> (박태원 작사, 김성태 작곡)과 <건국의 노래>(나운영 작곡)도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노래들은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실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1945년 9월부터 정국은 좌우로 나뉘었고, 해

10) 『노래 모음』에 수록된 <어린이날>은 ‘어린이날 전국준비위원회’에서 선정한 노래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윤석중 작사, 윤극영 작곡의 <어린이날>과는 다른 노래다. 사장조에 24마디로 이루어져 있으며, 2/4박자로 시작하다 후렴 부분부터는 4/4박자로 박자가 바뀐다. 그리고 4음과 7음이 빠진 5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11) <삼일운동의 노래>에 대해서는 장유정·신혜승, 『노래에 담긴 3·1운동의 기억과 기념: 《삼일운동의 노래》, 《삼일절가》, 《삼일절 노래》의 비교를 통해』, 『이화음악논집』 22, 2018을 참고할 수 있다.

방의 음악도 좌우로 갈렸다. <독립행진곡><sup>12)</sup>과 <건국의 노래>가 우익 진영의 노래라면, 김순남 작곡의 <자유의 노래>·<해방의 노래>·<건국 행진곡> 등은 좌익 진영의 집회에서 널리 불렸다.<sup>13)</sup> 그렇다면 김성태와 나운영 작곡의 노래를 『노래 모음』에 실은 것은 편자인 김학성의 정치적 성향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부 합창이자 4/4박자, 사장조(G Major), 17마디로 이루어진 <독립 행진곡>과, 4/4박자, 마장조(E Major), 27마디로 이루어진 <건국의 노래>는 희망을 전제로 한 선동과 계몽을 주제로 한 노랫말로 이루어진 노래들이다.

어둡고 괴로워라 밤이 길드니 삼천리 이 강산에 먼동이 텃네  
 동무야 자릴 차고 이러 나가라 산 넘어 바다 건너 태평양 넘어  
 아아 자유의 자유의 종을 올린다 <독립행진곡>

삼천리 반도강산 새날은 맑아 찬란히 솟아오른 역사의 태양  
 새로운 붉은 맥박 힘차게 뛰는 삼천만 한데 뭉쳐 새 집을 짓세  
 전 민족의 정의와 진리 오 건국에 피 끓는 이 땅의 젊은이 조국의  
 마음아 <건국의 노래>

위의 노래들은 ‘먼동’·‘자유의 종’·‘새날’·‘붉은 맥박’·‘정의’·‘진리’·‘건국’·‘조국의 마음’ 등과 같은 희망적이고도 긍정적인 어휘들로 노랫말을 구성하였다. 또한 선동하기 위해 “~거라”와 같은 명령형 어미나 “~세”와 같은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였다. <독립행진곡>의 “동무야 자

12) <독립행진곡>은 1980년대 학생운동권에서 <해방가>라는 제목으로 널리 불렸다. 1950년대 아동들을 위한 노래이자 우익 진영의 노래가, 1980년대에 대학생의 노래이자 이른바 운동가요로 향유된 것을 알 수 있다.

13) 『시사저널』 1647호 2018. 8. 10., ‘해방과 독립 사이에서 사라진 노래들’(강헌)

릴 차고 이러나거라(일어나거라)”와 <건국의 노래> 속 “새 집을 짓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노랫말로 이루어진 노래가 있는가 하면, 계몽적인 내용의 노래로 한글과 관련된 노래가 두드러졌다. <문자보급가>·<한글 노래>·<우리말 우리글로>가 모두 이에 해당한다.

1. 맑은 시내가에서 고기 잡는 소년들 일할 때 일하고 배울 때 배우세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2. 푸른 잔디 위에서 나물 캐는 소녀들 일할 때 일하고 배울 때 배우세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3. 베 짜는 어머니와 나무하는 아버지도 일할 때 일하고 배울 때 배우  
세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문자보급가>(홍난파 곡)
1. 세종 임금 한글 펴니 스물여덟 글짜 사람마다 쉬 배워서 쓰기도 편  
하다  
(후렴) 슬기에 주린 무리 이 한글 나라로 모든 문화 그 근본을 밝히  
러 갈꺼나
  2. 온 세상의 모든 글씨 견주어 보아라 조리 있고 아름답기 으뜸이 되  
도다
  3. 오랫동안 묻힌 옥돌 같고 닦아서 새빛 나는 하늘 아래 골고루 뿌리  
세 <한글 노래>(채동선 곡)
1. 파랑새는 파랑말로 노래 부르고 파랑새는 파랑글로 노래를 짓고  
조선 사람 조선말로 노래 부르고 조선사람 조선 글로 노래를 짓고  
기억 나은 조선혼이 었드려 있고 디근 리을 조선혼이 숨 쉬고 있다

2. 앵무새는 앵무말로 이야기하고 앵무새는 앵무글로 노래를 짓고  
 조선 사람 조선말로 이야기하고 조선 사람 조선글로 이야기 짓고  
 아아어여 조선맘의 보금자리요 오유우유 조선맘의 고향이란다  
 <우리말 우리글로>(김성태 곡)

위의 노래들은 모두 한글과 관련이 있는 노래들이다. 작곡자의 이름만 적혀 있고 작사자의 이름은 누락되어 있으나, 다른 자료를 통해 작사자의 이름을 확인하였다. <문자보급가>와 <우리말 우리글로>는 윤복진이 작사했고, <한글 노래>는 이극로가 작사하였다. 윤복진은 1950년에 월북했고, 이극로는 1948년 4월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김구 등과 평양에 갔다가 그곳에 남아 북한에서 활동하였다. 윤복진과 이극로의 이러한 행적 때문에 김학성이 일부러 그들의 이름을 노래책에서 누락시킨 것인지는 현재로서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그들의 행적이 작사가 이름을 누락시키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짐작할 뿐이다.

손태룡은 윤복진이 작사한 동요를 연구하면서 <문자보급가>의 음원을 알 수 없다 하였다.<sup>14)</sup> 하지만 이번에 한국음반아카이브에서 소장하고 있는 음반의 음원을 확인하였다.<sup>15)</sup> 『노래 모음』에 실린 악보는 내림 나장조(Bb Major), 2/4박자, 16마디, 파와 시가 빠진 오음계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한국음반아카이브 소장 음원을 들으며 비교해보니, 음원에서 마지막에 ‘시’로 끝나는 것과 달리 악보에는 ‘도’가 적힌 한 마디가 더 나온다. 하지만 음원을 들어봐도 그렇고 악보 구성을 봐도 그렇고

14) 손태룡, 『윤복진의 가사로 된 악곡 고찰』, 『음악문화학』 5, 2014, 151쪽. 1937년에 녹음한 <문자보급가>는 빅타 음반회사에서 음반 번호 KJ3015를 달고 진정희의 목소리로 녹음되었다. 음반에는 작사자와 작곡자 이름이 모두 누락되어 있었으나 『노래 모음』을 통해 그 작곡자를 확인하였다.

15) 이 자리를 빌려, <문자보급가>의 음원을 제공해준 한국음반아카이브 연구소의 석지훈 선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시’로 끝나는 것이 맞는다. 따라서 악보에 ‘도’로 끝난 것은 채보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실수가 아닐까 한다.<sup>16)</sup>



<그림 2> 『노래 모음』에 수록된 <문자보첩(금)가>

마지막 한 음을 제외하면 음악적으로 악보와 음원은 거의 동일하다. 그에 반해, 노랫말에서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 즉 1937년에 녹음된 음원에는 악보상 2절의 ‘푸른 잔디’ 대신 ‘푸른 언덕’이 나온다. 아울러 3절에서 『노래 모음』 가사와 달리, 음원에서는 아버지가 먼저 나오고 이후에 어머니가 나온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몇 부분이 다르긴 하지만 <문자 보첩가>는 1937년에 음반으로 발매되었던 노래와 동일한 노래다. 특히 이 노래는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배우자”고 권유하는 노래로 계몽적 의미를 지닌다.

이극로가 작사하고 채동선이 작곡한 <한글 노래>는 1945년에 발표되었다고 한다. 2017년에 ‘성북 훈민정음 축제’에서 재현되기도 했던<sup>17)</sup>

16) 이 자리를 빌려, 필자의 <문자 보첩가> 음악 분석을 점검해준 장어수 선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한글 노래>는 4/4박자, 사장조(G Major), 17마디로 이루어져 있다. ‘행진조로’ 부르라 적혀 있는 이 노래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역사적 배경을 읊은 것과 동시에 한글이 “조리 있고 아름답기 으뜸”인 노래라며 한글에의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후렴에서 한글에의 자부심은 절정에 이른다. 즉 “슬기에 주린 무리 이 한글 나라로 모든 문화 그 근본을 밝히려 갈꺼(거)나”라고 해서, 한글 나라로 모든 문화의 근본을 밝히려겠다는 포부마저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우리말 우리글로>는 1946년에 윤복진 편 『초등용가요곡집』(파랑새사 발행)에도 실려 있다.<sup>18)</sup> 2/4박자, 바장조(F Major), 24마디, 5음계로 이루어진 <우리말 우리글로>는 한글 사랑을 표현한 노래다. 김성태가 작곡한 이 노래는 민요와 같은 전통 음악의 진행을 보여준다. 노랫말은 “파랑새가 파랑말로 노래하고 파랑글로 노래를 짓는다”는 동화적 상상력에 빚대어서 “조선 사람은 조선 말로 노래 부르고 조선 글로 노래를 지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게다가 한글에서 조선혼을 찾고 한글을 조선 마음의 보금자리이자 고향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한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계몽을 주제로 한 노래들은 나라 사랑이나 한글의 우수성 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시기 노래 중에 한글 관련 동요가 많았다는 것은 우연히 아니다.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글을 찾을 수 있었다. 다시 찾은 한글과 한글에의 자부심은 바로 한글을 찾은 감격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른바 ‘문맹퇴치운동’은 미군정기(1945~1948)를 거쳐 1950년대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이 운동은 1960년대 초 국민재건운

17) 『서울경제』 2017. 10. 24.

18) 손태룡, 앞의 글, 123쪽.

동본부가 주관한 문맹퇴치운동, 대학생들의 농촌계몽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sup>19)</sup> 김학성이 『노래 모음』에 유독 한글 관련 노래를 많이 실은 것도 어린이들에게 노래로 한글 사랑을 깨우쳐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했다고 본다.

## 2. 자연과 관련된 노래

『노래 모음』에 실린 자연과 관련된 노래는 100곡 중 47곡을 찾을 수 있었다. 제목은 다음과 같다.

<종달새>·<새야새야 파랑새야>·<산바람 강바람>·<시내물>·<산새>·<반달>·<은실비 금실비>·<운직>·<봄비>·<누가 누가 잠자나>·<낮에 나온 반달>·<봄날>·<하늘구경>·<진달래>·<할미꽃>·<별나라>·<꽃밭>·<헤지는 강변>·<물새>·<전선줄 전거장>·<밝안 가락남>·<미풍>·<작은별>·<조희배(중이배)>·<푸른 숲울>·<저녁바다>·<피꼬리>·<기러기>·<눈>·<월계꽃>·<구름>·<기쁨의 노래>·<봄이 왔다고>·<그리운 강남>·<빼꾸기>·<성불사의 밤>·<부슬비>·<달마지>·<망아지>·<나비 노래>·<불어라 봄바람>·<빼꾸새 알쓰>·<삼쌀개>·<양춘가절>·<고드름>·<즐겁게 부르자>·<물새 발자욱>

노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새(종달새·파랑새·물새·피꼬리·기러기·빼꾸기), 시내, 바람, 비, 봄, 꽃(진달래·할미꽃·월계꽃) 등 다양한 자연이 노랫말에 등장하였다. 자연을 소재로 한 노래들은 여타 동요들과 마찬가지로 의인화하는 특징을 드러냈다.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내용보다

19) 『기록으로 만나는 “1950년대 문맹퇴치운동”』,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 2011. 3. 31. 기록에 따르면 범국가적으로 추진한 문맹퇴치사업은 해방 당시 약 78% (만 12세 이상 인구 10,253,138명 중 문맹자 7,980,902명)에 달했던 문맹률을 1960년에 28%로 낮추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긍정적인 내용이 많았는데, 긍정적인 내용을 담은 노래의 경우 ‘동화적 상상’을 표현하였다.

1. 소내기는 구름의 아우 / 무지개는 소내기 언니  
구름에는 소내기 가고 / 소내기엔 무지개 서네
2. 구름 가는 소내기 가고 / 뒤미쳐서 무지개 온다  
쫓아 가자 오색 무지개 / 같이 가자 잼센 아이야
3. 무지개에 매여 달리면 / 하늘 구경 가게 된다네  
꿈에 보던 하늘 세상을 / 자나 깨나 볼 수 있다네  
<하늘 구경>(윤극영 곡)

1. 푸른 숲을 육어진 꼬불꼬불 고개길 경충경충 산토끼  
서양 댄스 따라라 따라랏다 따라라 따라라 따라라
2. 푸른 숲을 육어진 산과 들에 모여서 우리 동무 때동무<sup>20)</sup>  
즐거웁게 따라라 따라랏다 따라라 따라라 따라라  
<푸른 숲을>(윤이상 곡)

윤극영의 <하늘 구경>은 윤극영의 여타 작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작품이다.<sup>21)</sup> 마장조(E Major), 2/4박자, 16마디로 이루어져

---

20) 복사 상태가 좋지 않아서 <푸른 숲을>의 노랫말 중 ‘때동무’가 맞는지 확실하지 않다.

21) 윤극영의 <하늘 구경>은 1946년에 아협동요연구소에서 편 『조선동요백곡선』상권(조선아동문화협회에도 실려 있다. 그런데 목차에서는 <하늘 구경>의 작사자를 유지영으로 적은 것과 달리, 해당 쪽수에 실린 <하늘 구경> 악보에는 윤극영 작사 작곡이라 적혀 있다. 즉 이 노래를 윤극영이 작곡한 것은 맞으나 이 노래의 작사자가 유지영인지 윤극영인지에 대해서는 여타 자료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이 자리를 빌려 동요의 작사자와 작곡자 관련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제공해준 장정희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있는 이 노래는 동화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노래이기도 하다. 하늘에 있는 소나기, 구름, 무지개를 들어 과학적 현상을 의인화해서 표현하였다. 구름이 소나기를 물고온다는 점에서 “소나기는 구름의 언니”라고 하고, “무지개는 소나기 언니”라 하였다. “무지개에 매여 달려 하늘 구경을 가게 된다”는 표현은 동화적 상상력의 소산이다.

음성상징어를 사용한 <푸른 숲을>은 윤이상이 작곡한 노래이면서 동화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노래라 주목할 만하다. 통영 출신의 윤이상은 해방기부터 1953년에 서울로 이주하기 전까지 부산에 있었다. 즉 1947년 통영여중 교사를 시작으로 1948년 3월 20일부터 1952년 3월 25일까지 부산사범학교, 1952년 5월 31일부터 1953년 9월 15일까지 부산중학교에 재직하였다.<sup>22)</sup> 기존 논의에서 이 작품에 대한 정보를 거의 찾을 수가 없는데, 윤이상이 부산에 거주하는 시절에 김학성과 교류하며 <푸른 숲을>을 노래책에 실기에 이른 것이 아닐까 추정한다.

음악적으로 라장조(D Major), 2/4박자, 12마디로 이루어져 있는 <푸른 숲을>은 8분음표(♪)를 주로 사용하여 음악적으로 밝고 경쾌하게 전개된다. 상행이든 하행이든 도약 진행이 아닌 순차 진행으로 이루어져 있어 편하고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이다. 이 노래도 동화적 상상력이 돋보이는데, 특히 산토끼가 “서양 댄스”를 한다고 표현한 것이 그러하다. 이어서 나오는 “따라라 따라랏다 따라라 따라라 따라라”같은 음성상징어는 산토끼가 춤추는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이 작품은 의인화를 사용한 재밌는 작품이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동요이다 보니, 주로 긍정적이고 밝고 희망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진 노래가 많다. 하지만 어떤 노래들은 슬프거나 애상적인 감정을 드러내는데, <산새>나 <해지는 강변>이 그러하다.

22) 남영희, 앞의 글, 98~99쪽.

1. 산에 사는 산새는 가여운 새는 / 비비배배 노래하며 어디로 가나  
가도 가도 끝없는 깊은 산속에 / 외로이 울다 울다 쉬고 있겠지

2. 산에 사는 산새는 처량한 새는 / 어두컴컴 이 밤엔 어디서 자나  
늘어진 어린 날개 고단하여서 / 가다 가다 숲에서 자고 있겠지  
<산새>(목일신 작사, 김성태 작곡)

1. 저녁 하늘 붉은 노을 강물 위에 비치어  
수놓은 비단물결 반짝이는 금물결  
찰랑찰랑 노래하며 흘러 내려 갑니다

2. 먼 바다엔 흰돛 달고 도라오는 조각배  
넘실넘실 고기 잡아 가득 실고 오는데  
갈매기는 울며 울며 깃을 찾아 갑니다 <해지는 강변>(윤이상 곡)

목일신<sup>23)</sup>이 작사하고 김성태가 작곡한 <산새>는 내림나장조(Bb Major), 6/8박자, 12마디로 이루어진 노래이다. 나타냄표에 ‘처량히’라고 적혀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장조이긴 해도 순차 진행을 통해 선율이 서정적으로 전개된다. 그에 더해, 그 노랫말은 산새의 처량함을 그리고 있다. 사실상, 산새가 가없다거나 처량하다고 말하는 것은 산새의 진짜 감정이라기보다는 인간의 감정을 산새에 이입한 것이다. 즉 인간이 산새를 보며 느끼는 감정을 가엽다거나 처량하다고 표현한 것이다.

---

23) 1913년 전라남도 고흥에서 출생한 목일신은 독립운동가 목홍석 목사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3.1 운동으로 투옥되어 고문후유증으로 1928년 작고한 후, 전주 신흥학교 2학년이 재학 중이던 1930년 광주학생독립운동에 가담하여 투옥 후 퇴학 당하기도 했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로 시작하는 <자전거>를 작사한 목일신은 400여편의 동시, 수필, 가요를 발표하며 우리말과 글을 통해 일제에 저항했다. 아울러 순천여고, 목포여중, 이화여중고, 배화여중고에서 35년간 국어교사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하였다(『부천타임즈』 2016년 10월 01일).

어쩌면 이런 노래들은 슬픈 감정 그 자체보다 자연과 교감하고 소통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무언가를 보며, 가엽다고 느끼는 것은 공감하고 배려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민이야말로 인간이 인간에게, 인간이 자연에 지녀야 할 중요한 감정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노래들은 서정적이고도 애상적인 선율과 노랫말을 통해, 부르는 이에게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어린이는 이러한 노래를 듣고 부르며 연민의 감정은 은연중에 배울 수 있다. 그러한 연민의 감정은 아이들에게 예쁘고 바른 마음을 심어줄 수 있다. 동요 중에 이러한 노래들이 많은 것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나타냄표에 ‘처량히’라 적혀 있는 <해지는 강변>은 4/4박자, 내림나 장조(Bb Major), 12마디로 이루어진 노래다. 『노래 모음』에는 작사자 이름이 안 적혀 있으나, 이 노래의 작사자는 <산새>와 마찬가지로 동요작가 목일신이다.<sup>24)</sup> <산새>와 마찬가지로 순차 진행을 통해 선율에서 서정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 노래도 <푸른 숲을>과 마찬가지로 윤이상이 작곡한 동요로 주목할 만하다.

한편, <해지는 강변>은 해지는 강물의 풍경을 아름답게 그린 노래다. 노랫말에 나온 것처럼 노을이 강물 위에 비친 것을 “수놓은 비단물결 반짝이는 금물결 찰랑찰랑 노래하며 흘러 내려”간다고 하였다. 2절에서는 “먼 바다엔 흰 돛 달고 돌아오는 조각배”에 고기가 가득 실려 있는 평화로운 풍경을 그렸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그저 평화로운 풍경을 그린 것처럼 보이나,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한 평화로운 풍경이 깨진다. “갈매기는 울며울며 깃을 찾아 갑니다”라고 한 것에서, 나타냄표에서 ‘처량히’라고 한 것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24) 목일신이 작사한 <해지는 강변>은 이동순 엮음, 『목일신 동요곡집』, 소명출판, 2013, 96쪽에 실려 있다.

서양에서 보통 ‘새가 노래한다’고 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종종 ‘새가 운다’라고 표현한다. 따라서 “갈매기 운다”라고 한 것도 단순히 관습적인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노래의 나타냄표가 ‘처량히’였다는 것을 상기하면, “갈매기가 울며울며”라고 한 것을 관습적인 표현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갈매기는 울며울며 깃을 찾아 갑니다”에서 이 노래가 지난 애상성을 감지할 수 있다.

요컨대, 『노래 모음』에 수록된 자연 관련 노래들은 대체로 동화적인 상상력을 드러낸 노래와 애상적인 감정을 표현한 노래로 나뉜다. 어떤 경우이든 의인화를 사용하여 자연을 사람처럼 묘사한 것이 특징적이다. 동요에서 동화적인 상상력을 표현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에 반해, 자연에 감정을 이입하여 애상적인 감정을 드러낸 것은 다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슬프거나 애처로운 감정은 이러한 동요를 듣고 부르는 어린이들에게 인간이 지녀야 할 아름다운 감정인 연민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자연과의 교감과 소통은 이러한 연민에서 비롯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게다가 『노래 모음』을 통해 윤이상이 작곡한 노래를 만나고, 윤극영이 창작했으나 여타 노래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노래를 확인할 수 있어 『노래 모음』이 지닌 가치가 높다고 본다.

### 3. 인간사를 그린 노래

『노래 모음』에는 인간사를 그린 노래가 100곡 중 35곡이 실려있다. 그 제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오빠생각>·<기차>·<달아 달아>·<어깨동무>·<어린 음악대>·  
 <엄마 생각>·<고추 먹고 맴맴>·<나는 잘해요>·<동리 의원>·<누가  
 제일 잘하나>·<설날>·<어머니 가슴>·<돌다리>·<불조심>·<줄넘기>

·<클레멘틴>·<하모니카>·<강아지래요>·<고향생각>·<스케팅>·<고향의 어머니>·<모찰트의 자장가>·<로렐라이>·<즐거운 나의 집>·<깜박깜박>·<졸업식 노래>·<자장가>·<금강에 살으리랴다>·<인사>·<시골음악대>·<수남이 바보>·<자장가>·<어머니 사랑>·<김치깍둑이>·<이 몸이 새라면>

제목만 놓고 보면 역시 어머니(엄마)가 가장 많이 나왔다. 하지만 실제 노랫말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한다. 특히 가족이 많이 등장하였다. <오빠 생각>의 ‘오빠’, <기차>의 ‘할머니’, <달아 달아>의 ‘부모’<sup>25)</sup>, <엄마 생각>의 ‘엄마’, <고추 먹고 맴맴>의 ‘아버지’·‘할머니’·‘어머니’, <설날>의 ‘언니’·‘아버지’·‘동생’·‘어머니’, <어머니 가슴>의 ‘어머니’, <불조심>의 ‘엄마’, <클레멘틴>의 ‘아버지’와 ‘딸’, <하모니카>의 ‘오빠’와 ‘어머니’, <고향생각>의 ‘어머니’, <고향의 어머니>의 ‘부모형제’, <모찰트의 자장가>의 ‘아가’, <자장가>의 ‘아기’, <어머니 사랑>의 ‘어머니’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노래들은 대체로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표현한 경우가 많았다. 주목할 것은 <고추 먹고 맴맴>의 노랫말이다. 윤석중 작사, 박태준 작곡의 <고추 먹고 맴맴>은 현재까지도 널리 불리는 동요 중의 하나다. 원래 있던 전래 동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1920년대 당시 <집 보는 아기의 노래>로 발표되었다. 현재 이 노래의 노랫말에서 “달래 먹고 맴맴”은 원래 “담배 먹고 맴맴”이었다. 『노래 모음』에서도 원래의 노랫말대로 “담배 먹고 맴맴”이라 적혀 있어 바뀌기 이전의 원형을 유지한 가사를 확인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노래 모음』에 수록된 동요 속 가족은 그리움의 대상으로 묘사되었다.

25) <달아 달아>의 고행(古形)에 대해서는 장유정, 『19세기 서양인이 바라본 한국 음악과 <달아달아>』, 『구비문학연구』 40, 2015를 참고할 수 있다.



엄마가 그리워 보고 싶어서 / 엄마와 걸던 길을 걸어보려고  
나 혼자 타박타박 걸었습니다

엄마가 그리워 보고 싶어서 / 휘파람 불며 불며 잊으려 해도  
보고 싶은 이 마음 풀 길이 없네 <엄마 생각>(홍은순 요, 한샘 곡)

‘고적한 색감으로’라는 나타냄표가 붙어 있는 <엄마 생각>은 6/8박자, 내림마장조(Eb Major), 12마디로 이루어져 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애상적인 노랫말이 인상적이다. 노래 속 화자는 엄마를 그리워하나 엄마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엄마와 걷던 길을 걷고, 휘파람을 불며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어떻게든 잠재우려 노력한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잠재울 수는 없다. 그 때문에 2절 마지막에서 노래 속 화자는 “보고 싶은 이 마음 풀 길이 없네”라 하였다.

엄마에의 절절한 그리움을 드러낸 <엄마 생각>의 작사자는 홍은순이다. 홍은순은 지금까지 활발하게 연구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과문해서인지 연구 논문을 하나 정도 찾았을 뿐이다.<sup>26)</sup> 박상재의 논의에

따르면, 유아문학의 대모로 불린 홍은순(1917-2008)은 홍중환과 박정환 사이에서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sup>27)</sup> 홍은순이 8살 무렵, 아버지의 사업 문제로 잠시 어려운 적이 있긴 했으나, 대체로 유복한 환경에서 큰 어려움 없이 유년 시절을 보냈다. 수송공립보통학교와 동덕여고를 졸업하고 문학이나 성악을 전공하려 했던 그는 부친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 대신 이화보육학교에서 이태준과 이희승을 사사했다.

이화보육학교 졸업 후에 동경 옥성보육사범학교 연구과와 사범과에 진학한 홍은순은 아동교육, 아동문학, 아동심리학을 공부하며 부속유치원 교사로 일했다. 졸업 후 귀국하여 경성방송국 아나운서에 응시했으나 실패한 홍은순은 1940년 10월, 24세에 경성방송국 아나운서 송영호와 결혼하였다. 아들 현식과, 딸 혜랑과 애랑을 낳은 홍은순은 라디오 연속 방송극 「똥똥이의 모험」의 해설을 3년간 맡았다. 1947년부터 남대문교회 병설유치원 교사를 지낸 홍은순은 1947년 혜화유치원의 주임교사로 있으면서 김구 선생의 손녀 김효자를 가르치기도 했다.

해방 후 홍은순은 김영일과 이원수 등이 주도한 아동문학회의 창립 구성원으로 활동했고, 1948년에는 서울가정보육사범학교 보육과장 겸 학생처장으로 2년여 동안 일하다 건강 문제로 사퇴했다. 1948년에<sup>28)</sup> 소방청 주최 불조심 노래 공모에서 1등으로 당선되기도 했던 홍은순은 1950년에 6.25전쟁이 발발 후 부산으로 피란하여 그곳에서 은련유치원을 개원했다. 휴전 후 서울로 돌아온 홍은순은 1954년 창신유치원을 설립하여 2001년까지 운영하였다. 1956년에는 대한유치원교육협회를 조직하여 초대회장을 지낸 홍은순은 1959년에 첫 동화집 『은방울』을 상

26) 박상재, 「한국 유아문학의 대모: 홍은순 작가 작품론」, 『아동문학평론』 42, 2017.

27) 홍은순의 생애는 위의 글, 20~23쪽을 참고하였다.

28) 박상재는 홍은순이 <불조심>으로 상을 받은 해를 1949년이라 하였으나(위의 글, 21-22쪽), 홍은순의 <불조심>이 『경향신문』 1948년 11월 21일자에 실린 것을 필자가 확인하였다. 이에 필자는 본고에서 <불조심>이 나온 연도를 1948년이라 적었다.



재하였다.

홍은순이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부산으로 피란을 가서 그곳에 거주하기는 했으나 『노래 모음』이 발행된 것은 1950년 5월 15일이므로 6.25전쟁 발발 이전에 이 책이 나왔다. 따라서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당시 부산에 있던 김학성이 홍은순 내지 홍은순의 작품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노래 모음』에는 홍은순이 작사한 노래가 무려 8곡이나 실려 있다.<sup>29)</sup> <불조심>처럼 계몽적인 내용을 담은 노래에서부터 앞서 살펴본 <엄마 생각>처럼 애상적인 내용의 노래까지 다양하게 실려 있다.

『노래 모음』에 수록된 노래의 작사가 중 정체가 알려진 사람은 40여명에 이른다. 보통 한 사람이 한두 작품을 수록하였다. 윤석중, 홍난파, 윤복진, 이은상 등이 작사한 노래도 많아야 5곡 내지 6곡이다. 그에 반해, 홍은순이 작사한 동요는 8곡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남성 작사가들의 작품인 것과 달리, 여성 작사가 홍은순의 작품들이 더욱 많이 실은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학성의 『노래 모음』을 통해 홍은순이란 여성 동요 작사가의 작품들을 확인한 것은 본고의 성과이기도 하다. 다만, <엄마 생각>을 포함하여 홍은순이 작사한 노래 세 곡을 작곡한 ‘한샘’의 정체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엄마 생각>처럼 가족이 등장하는 노래 중 가족에의 그리움을 표현한 노래가 태반인 것과 달리, 자신이나 동무를 대상으로 한 노래들은 대부분 음악적으로나 문학적으로 경쾌하고 밝은 노래들이다. <어깨동무>, <어린 음악대>, <나는 잘해요>, <스케팅> 등이 모두 그러한 예에

29) 『노래 모음』에 수록된 홍은순의 작품은 다음과 같다. <기차>(박태현 작곡), <엄마 생각>(한샘 작곡), <별나다(별나라)>(한샘 작곡), <불조심>(한샘 작곡), <줄넘기>(김성태 작곡), <전선줄 정거장>(박태준 작곡), <구름>(김성태 작곡), <봄이 왔다고>(윤극영 작곡)

해당한다.

1. 나는 나는 노래를 아주 잘 부릅니다 우리 누나보다도 더 잘 부른다  
나요  
엄마 아빠 앞에서 노래 노래 부르던 누나도 오빠도 같이 모두 노래  
불러요

2. 나는 나는 춤을 췌 잘 춰드립니다 우리 언니보다도 더 잘 춰드나요  
엄마 아빠 보시라 언니 노래 맞추어 나쁜 나쁜 춤추면 나는 아주 기  
뻐요 <나는 잘해요>

1. 동무야 나오라 저 연못으로 밤사이 얼음이 참 잘도 얼었네

2. 유리창 얼음에 물오리처럼 둥글게 모나게 스켈을 지치자 <스케팅>

두 노래 모두 작사자와 작곡자 이름이 누락되어 있어서 누구의 작품인지 알 수 없으나 이 노래들은 내 자신이나 친구와 관련된 노래이다. 어린 아이들의 때문지 않은 순수함이 노랫말에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노랫말에서 어른들과 다른 어린이들의 세상을 엿볼 수 있는 것은 노랫말의 노골성이나 솔직함 때문이다. 문학적인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 우회하거나 돌려말하지도 않고 직접적으로 본인의 말을 한다는 것에서 아이의 순수함을 느낄 수 있다.<sup>30)</sup>

<나는 잘해요>에서는 엄마 아빠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자신이 다른 형제보다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것을 해맑게 드러냈다. <스케팅>에서도 밤사이 얼음이 잘 얼었으니, 스케팅 지치러 가자고 친구에게 말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노래들은 비록 어른이 노래를 작

---

30) 이 자리를 빌려, 노랫말 분석에 의견을 준 최용진 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사했을지라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노랫말을 썼다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음악적으로 <나는 잘해요>는 2/4박자, 17마디, 다장조(C Major)로 이루어져 있고, <스케팅>은 3/4박자, 바장조(F Major), 16마디의 2부 악보로 구성되었다.

요컨대, 인간사를 그린 노래들은 크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그린 노래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내 자신이나 친구를 그린 노래로 대별된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그린 노래가 음악적으로나 문학적으로 애상적인 것과 달리, 내 자신이나 친구를 그린 노래들은 음악적으로 경쾌하고 문학적으로 비유가 아닌 직설적인 표현을 쓴 것이 특징적이다.

#### IV. 맺음말

이상으로 부산 출신 대표 음악가 김학성이 엮은 『노래 모음』을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김학성의 생애를 통해 김학성이 초등용 노래책인 『노래 모음』을 발행하게 된 배경을 추정하였다. 김학성은 이 책을 발행한 1950년을 전후로 부산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 100곡이 실린 노래책 『노래 모음』을 편찬한 것은 중·고등학교의 교사 신분으로 있던 그가 어린이들의 음악 교에도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노래책의 서문에 밝힌 것처럼,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노래를 보급하려는 마음에서 노래 100곡이 실린 『노래 모음』을 발행하였다.

김학성은 한글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글’ 관련 노래를 많이 실은 것도 그렇지만, ‘췌음’ 대신에 ‘째’이라는 순우리말을 사용한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게다가 악보와 함께 적은 ‘나타냄표’가 거의 모두 한국어로 이루어진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는 교육자이자 음악가였던 김학성이 지향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노래 모음』에 수록된 100곡을 그 노랫말을 중심으로 하여 계몽을 주제로 한 노래, 자연과 관련된 노래, 인간사를 그린 노래로 나누어 각각 살펴보았다. <시계>를 제외한 99곡을 세 갈래 중 하나에 귀속시킬 수 있었다. 계몽을 주제로 한 노래는 주로 나라 사랑이나 한글의 우수성 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계몽을 주제로 한 노래들이기 때문에 청유형 어미나 명령형 어미를 사용한 노랫말이 많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다음으로 자연 관련 노래들은 대체로 동화적인 상상력을 드러낸 노래와 애상적인 감정을 표현한 노래로 나뉜다. 어떤 경우이든 의인화를 사용하여 자연을 사람처럼 묘사한 것이 특징적이다. 동요에서 동화적인 상상력을 표현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에 반해, 자연에 감정을 이입하여 애상적인 감정을 드러낸 노래는 노래를 듣고 부르는 어린이들에게 연민의 감정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으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인간사를 그린 노래들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그린 노래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내 자신이나 친구를 그린 노래로 대별된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그린 노래가 음악적으로나 문학적으로 애상적인 것과 달리, 내 자신이나 친구를 그린 노래들은 음악적으로 경쾌하고 문학적으로 비유가 아닌 직설적인 표현을 쓴 것이 특징적이다.

본고는 김학성이 엮은 『노래 모음』 수록 곡의 면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자료를 찾고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본고에서 언급한 각 노래에 대한 정보를 찾아 제시한 것은 본고의 성과다. 윤이상의 동요나 여성 동요 작사가 홍은순의 동요를 언급하여 그들 노래에의 관심을 환기하였다. 하지만 홍은순이 작사한 동요에 곡을 붙인 한샘의 정체는 아직 알 수 없다. 앞으로 한샘 등의 정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

『노래 모음』 곳곳에 있는 삽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연 누가 이

노래책의 삽화를 그렸을까를 생각해보았다. 제갈삼은 부산여중에 있을 당시 김학성의 장녀 김견자와, 선생과 학생 사이로 만난 이야기를 책에 실었다. 김견자의 공책 표지에 연필세화로 아주 잘 그린 모차르트의 초상화가 붙어 있어서 제갈삼이 누가 그린 것이냐 물었더니, 김견자가 아버지 김학성이 그렸다 했다는 것이다.<sup>31)</sup> 즉 김학성은 음악 못지 않게 그림에도 재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노래 모음』 곳곳에 실린 그림도 김학성이 그리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정해본다. 마지막으로 본고가 광복 이후부터 1950년대에 발행된 음악책의 전모를 살피는데 있어 기본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본고를 마무리한다.

## | 참고문헌 |

### 1. 저서 및 논문

- 국민음악연구회 발행, 『초등 음악책』1·2·3학년용, 1949.  
 국민음악연구회 발행, 『초등 음악책』4·5·6학년용, 1949.  
 김학성 짬, 『노래모음』 편, 향토문화협회, 1950.  
 나운영 편, 『어린이 노래책』, 1947.  
 남영희, 『해방기 부산 음악사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박상재, 『한국 유아문학의 대모: 홍은순 작가 작품론』, 『아동문학평론』 42, 2017.  
 손태룡, 『윤복진의 가사로 된 악곡 고찰』, 『음악문화학』 5, 2014.  
 아협동요연구소 편 『조선동요백곡선』 상권, 조선아동문화협회, 1946.  
 이동순 엮음, 『목일신 동요곡집』, 소명출판, 2013.  
 장유정, 『19세기 서양인이 바라본 한국 음악과 <달아달아>』, 『구비문학연구』 40, 2015.  
 \_\_\_\_\_, 『해방공간의 음악책 연구: 초등 음악책 『우리노래』의 발굴 및 소개』, 『구비문학연구』 60, 2021.

31) 제갈삼, 앞의 책, 399쪽.

장유정·신혜승, 『노래에 담긴 3·1운동의 기억과 기념』 『삼일운동의 노래』, 『삼일절  
가』, 『삼일절 노래』의 비교를 통해』, 『이화음악논집』 22, 2018.

제갈삼, 『초창기 부산음악사』, 세종출판사, 2004.

합천제1공립국민학교 음악연구부 편, 『우리노래』, 1946년 추정.

## 2. 기타자료

『부산일보』, 『서울경제』, 『부천타임즈』, 『경향신문』

『기록으로 만나는 “1950년대 문맹퇴치운동”』,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행정안전  
부, 2011년 3월 31일.

강현, 『해방과 독립 사이에서 사라진 노래들』, 『시사저널』 1647호, (주)시사저널사,  
2018년 8월 10일.

월포초등학교 <http://wolpo-p.gne.go.kr/wolpo-p/hm/hist/selectHistList.do?mi=49511>

투고일 : 2021. 05. 22. 심사완료일 : 2021. 06. 23. 게재확정일 : 2021. 07. 07.
-----------------------------------------------------------------

| Abstract |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Song Collection*(1950)  
edited by Busan musician Hak-Sung Kim

Zhang, Eu-Jeong

This paper examines the *Song Collection* compiled by Hak-Sung Kim, a representative musician in Busan. For this, in Chapter 2, I guessed the background in which Hak-Sung Kim published an elementary songbook, *Song Collection*, through the life of Hak-Sung Kim. Hak-Sung Kim was a teacher in Busan around 1950 when this book was published. Although he was in the middle school and the high school, he was also interested in music education for children. With the spirit of distributing various songs to children, he seems to have published the *Song Collection* containing 100 songs.

Hak-Sung Kim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Hangeul. This can be seen from the fact that there are many songs related to “Hangul” in the songbook. This can be seen from the use of the pure Korean word ‘째(jjam)’ instead of ‘combination’, or from the fact that the ‘Music Indicators’ written with the score is almost all in Korean. In the end, this also shows what the educator and musician Kim Hak-sung was aiming for.

Next, in Chapter 3, 100 songs from the *Song Collection* were divided into songs with the theme of enlightenment, songs related to nature, and songs depicting human life. Except for <Clock>, the songs generally could be attributed to one of the three branches. Songs with the theme of enlightenment are mainly composed of contents that emphasize the love of the country or the excellence of Hangeul. Since it was the theme of

enlightenment, it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re are many lyrics using the requesting-type or imperative-type endings. It can be considered an achievement of this paper to find and organize information about the songs' lyricists and composers while looking at the songs with the theme of enlightenment.

Next, songs related to nature are generally divided into songs that reveal fairy-tale imagination and songs that express affectionate feelings. In any case, it is characteristic to use personification to portray nature like a person. It is natural to express fairy tale imagination in nursery rhymes. I think that the song that brought emotion into nature and revealed the affectionate emotions served as an opportunity to learn the feelings of compassion for children who listen to and sing songs.

Lastly, songs about human life are roughly divided into songs about longing for family and songs about myself or friends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 Unlike songs that portray longing for my family musically and literary, songs depicting myself or my friends are musically cheerful and literary, with straightforward expressions rather than metaphors.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s the aspects of the songs included in the *Song Collection* compiled by Hak-Sung Kim. It is the achievement of this paper to find and present information about each song mentioned in this paper in the process of searching for materials and writing the thesis. Finally, I hope that this paper will be used as a basic material in examining the aspects of music books published in the 1950s from the liberation period.

**Key Words** : Haksung Kim, Busan Musician, Song Collection, Isang Yoon, Eunsoon Hong, 1950s, Songbook